

시립미술관에 가면 현대미술이 '쑥쑥'



백종인 작 '집차'

“미술관에서 작품만 보니? 우리 공부도 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이 청소년들을 위한 전시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전시 기획과 작품 보관에 그쳤던 기존의 편협한 미술관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래의 관람객이 될 청소년층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등 현대 미술을 소개해 준다.
이이남씨는 고흐의 자화상 원작에 미디어 기술을 접목시켜 움직이게 한 '고흐의 자화상과 개미야기'를 전시하고, 최문석씨는 모터를 이용해 움직이게 한 조각인 '노 젓는 배'를 출품했다.
노혜을씨는 어두운 공간에서 밝게 빛나는 막대 풍선들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체험형 작품을 선보이고, 정찬호씨는 철로 만든 물

이해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작품 감상 활동보고서'를 나눠주고 있다.
“인상파”“전은 마네, 피카소, 샤갈, 미로, 달리, 앤디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 현대미술의 슈퍼스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은 전시다.
또 독일의 국보급 작가 요셉 보이스의 작품 362점과 퍼포먼스 등을 담은 사진 작품 30여 점을 함께 선보이는 '요셉 보이스'전 청소년들이 놓치면 후회하는 전시다.

어린이·청소년 위한 수준 높은 전시 눈길

전문가 강연 등 교육기능 강화... 13일 특강

먼저 시립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갤러리가 기획한 '수리수리 미수리'전은 예술 작품을 움직임을 가미한 작품을 선보여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미술놀이라고 하면 흔히, 그림이나 조각 등 벽에 걸려있는 정적인 것으로 이해하지만 현대미술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굉장히 역동적이고 기상천외한 작품들이 많다.
이번 전시에는 이이남·최문석·노혜을·정찬호·백종인·윤종호씨가 참가해 어린이들에게 미디어 아트

레방아를 전시한다.
이 밖에 백종인씨는 자기 집을 짓고 남은 자재들로 만든 실제 자동차와 비슷한 크기의 자동차를 만들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들어가 놀 수 있게 했고, 윤종호씨는 여름 밤에 흔히 나타나는 나방을 소재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시립미술관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상파 이후 서양미술의 거장'(오는 11월 6일까지)과 '요셉보이스'("")전도 단순히 전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작품에 대한

시립미술관은 모처럼 열린 블록버스터 전시를 청소년들이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작품 감상 활동보고서' 작성을 돕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시 기획 의도 ▲작가에 대한 소개 ▲작품명 맞추기 등 흥미롭고 교육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 김정희 서울대 미술대 교수, 정금희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를 초청해 이들 전시와 관련된 특강을 열었다. 이후에도 오는 13일 오후 3시 김승환 조선대 미술대학 교수를 초청해 '근대성의 탄생'을 주제로, 오는 10월 27일에는 윤진섭 호남대 교수를 초청해 '21세기 현대 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주제로 각각 특강을 연다. 문의 062-613-71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찬호 작 'movement'

색을 통해 사람들의 표정을 읽다

김대원 초대전, 19~25일 서울 갤러리 K

한국화가 김대원(조선대 미술대학 교수)씨가 오는 19~25일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갤러리 K에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초대전에서 그는 더욱 강렬한 색과 추상성을 강조한 독특한 형태의 신작을 발표한다. 색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강조한 이들 작품은 축제를 통해 기쁨을 맛 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얼굴과 표정이 담겨 있다. 강하고 부드러운 색의 대비를 통해 감정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또 '수 많은 기억의 노래' '꿈을 꾸는 순간' 등의 작품은 조형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낼 수 없는 기억과 꿈 속 이미지를 그려냈다.

미술평론가 김상철씨는 “내면에서 건져 올린 무수한 단상들을 형상으로 드러내고 있고, 축제의 화려함과 흥겨움이 담겨 있다”면서 “분방하고 자유로우며 풍부한 여백의 여유를 지니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조선대 미대와 동 대학원 출신으로 16차례의 개인전, 살롱 도톤느 한국화 특별전, 2002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등에 참가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조선대 부총장과 같은 대학 미대 확장 등을 거쳐 현재 우리 민족 문화예술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문의 02-764-138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 이전기의 아침'

'충의공 최경회 장군 충의사지' '의암영각지'

최경회 장군·논개 부인 사료집 출간



의병장 최경회(崔慶會·1532~1593년)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추모제향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최경회 장군과 의암 논개(1574~1593년) 부인에 대한 자료를 총망라한 사료집 두 권이 동시에 나왔다.
화순 동면 충의사에 제향된 최경회 장군은 화순 출생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임명 되었고,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장렬히 싸우다 남강에 투신 순절한 인물로 고경명을 비롯한 호남 3대 의병장 중의 한 명이다.
사료집은 공무원 퇴직 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등으로 활동하

며 최경회와 논개를 연구해온 최재양(전 화순향토문화연구회장)씨가 엮었다.
아쉽게도 최씨가 책 발간 한 달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별세하는 바람에 그의 후손인 최윤석(서울 종로구의 회 전문위원)씨가 유지를 받들어 발간했다.
사료집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충의사지'(忠毅祠誌)와 '의암영각지'(義巖影閣誌)로 구성됐다.
장군의 후손에 의해 쓰인 '일휴당실기'(日休堂實記)와 진중간찰, '진주성 삼장사(三壯士) 결론' 등 그간 수집한 자료와 관련 문헌 등을 엮은 '충

의사지'는 최 장군의 생애와 삼장사 등 그 동안의 논란을 세심하게 펼쳐 보인다.
책은 400 여년 간 논쟁이 돼왔던 진주성 삼장사와 관련 각종 자료와 연구논문을 근거로 “축석루 삼장사는 호남의 최경회, 김천일(金千鎰), 고종후(高從厚) 장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암영각지'는 최 장군의 후처로 진주 축석루 의암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뛰어내려 민족혼을 일깨운 논개의 충열과 잘못 알려진 그의 생애 등을 정리했다.
최씨는 특히 일본인이 논개 부인에

의해 죽음을 당한 왜장의 원을 풀어주기 위해 논개의 영혼을 초혼해 사당을 세운 뒤 '한일합동유령제'까지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997년부터 논개 부인 영혼과 묘비, 영정 반환운동을 펼쳐왔다.
사료집에는 논개 부인에 대한 연구 논문과 사적, 관련 시문과 함께, 논개 부인 영혼·영정 반환운동의 전개과정과 진정서, 호소문 등이 실렸다.
한편, 충의공 최경회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향사와 기념식이 11일 오전 10시 충의사에서 봉행된다. 문의 010-6626-800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지역 대표 서점 모집

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서련·회장 박대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펼쳐지고 있는 '지역문화센터 모델서점' 사업의 일환으로 '2011 지역서점 및 지역대표서점'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중소형 서점을 지원하고 독서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서점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도원문고', 울산의 '문우당서점', 춘천 '광장서적' 등 8곳의 서점이 선정됐으며 광주·전남 지역에는 한 곳도 없다.
올해는 지역대표 서점 3곳과 지역서점 47곳 등 총 50곳을 뽑을 예정이다. 문의 02-927-1437~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리스트의 유일한 피아노 소나타 연주

김연 피아노 독주회, 오늘 금호아트홀

김연(사진) 피아노 독주회가 11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리스트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유일한 피아노 소나타인 '나단조 소나타'와 '초절기교 연습곡', '헝가리 랩소디'를 연주한다.
김연은 광주에오고 전담대를 졸업한 후 독일로 유학,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전문연주자 과정,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료했다.
각종 국제콩쿨에 입상하는 등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왔으며 광주 피아노아카데미·CN피아노 회원으로



전남에고, 광신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이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출플러스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유·스퀘어사우나

24시

★ 각종 편의시설 : 수면실(침대)·피부샵(스포츠마사지)·인터넷·안마기·이용원·세신·세화

■ 위치: 유·스퀘어 광주종합터미널 2층 아이엘리시아 옆 ■ 주차안내: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 문의전화: 062) 352-4455